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5호 【루계 제24983호】 주체10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평성시에 높이 모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평성시에 높이 모시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평안남도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순결무구한 충정의 발현이다.

평성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2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평남땅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새겨가시며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곽범기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형봉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평안남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환영곡이 울리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제막식장을 진감하는 속에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맑고 푸른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평안남도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평안남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는 평안남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연설자는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였으며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륭성번영의 시대를 안아오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굳건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남도에 거룩한 혁명활동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문화사업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평안남도인민들과 첫 상봉을 하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단위를 찾으시면서 도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앞장서나가도록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대규모화력발전소와 굴지의 대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여 도를 나라의 강력한 전력, 석탄, 화학공업기지로 꾸려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농업협동화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후에는 몸소 조합원이 되시여 당정책관철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평원군 원화리와 열두삼천리벌에 생명수를 보내주는 평남관개를 비롯하여 평안남도 그 어디에 가나 도를 나라의 중요곡창지대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산골군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산세험한 구지골의 치마대등판에까지 오르시여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전후의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의 밥상에 물고기를 놓아주시려 문덕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것을 비롯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은 진정 끝이 없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남도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안의 여러곳에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들과 현대적인 대규모건재공업기지를 일떠세우는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중요공업이 집중되여있는 도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자신의 생신날에도 평남땅의 협동벌을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꽃피워나갈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던 나날에는 도안의 농장포전들을 걷고걸으시며 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분이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도가 강성국가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맞게 모든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연설자는 오늘 도안의 전반사업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전개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언제나 평안남도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념원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평남땅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평안남도인민들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옹위하며 원수님의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충정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석탄과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주체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으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올해 도앞에 나선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도안의 축산 및 수산기지들을 추켜세우고 산림복구전투와 도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주요대상건설을 제기일내에 훌륭히 완공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자

지금 우리는 준엄하고도 첨예한 계급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가셔진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만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침략과 지배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총포성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온 반제계급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격렬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자!》, 이것이 우리 당과 혁명의 요구이고 시대와 력사의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정세가 긴장할수록 언제나 반제투쟁, 계급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화되고 계급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온갖 계급적예속과 착취에서 벗어나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주적삶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과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반동계급사이의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으로 이어져온것이 바로 인류사회의 발전력사이다.

우리 혁명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첨예하고도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전진하여왔다. 항일혁명전쟁과 새 조국건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 전 과정이 그대로 내외원쑤들과의 가렬처절한 대결의 련속이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년대를 이어오며 더욱더 끈질기고 악랄하게 감행되였으며 청산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옛 제도를 되찾기 위하여 이를 갈며 발악하였다.

피도 많이 흘리고 값비싼 희생도 치르며 계급적원쑤들과 판가리결사전을 벌려온 우리의 장구한 투쟁로정은 력사우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교훈과 진리를 새겨놓았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이 우리의 계급투쟁사가 가르쳐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지난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포악성과 잔인성이 만천하에 폭로된 전쟁인 동시에 적대계급에 대한 사소한 미련도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확증한 전쟁이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서는 3만 5,000여명의 인민들이 순한 양처럼 적들에게 끌려가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놈들도 사람이겠지, 설마 죽이기야 하겠는가고 어리석게 생각하던 나머지 앉은자리에서 무리죽음을 당하였으며 적들이 오란다고 하여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공손히 응하였다. 지어 자발적으로 적들을 찾아갔다가 생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평화시기에는 정체를 감추고 어리숙한체하다가도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속에 품은 앙심을 드러내고 악랄하게 책동하는자들이 바로 계급적원쑤들이다. 텔레비죤련속극 《붉은 흙》에 나오는것처럼 전쟁시기 계급적원쑤들은 각종 반동단체들을 조직하고 도처에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로동당원이라고 하여, 모범농민이라고 하여 삽과 곡괭이로 때려 죽이고 배를 가르고 머리가죽을 벗기는것도 서슴지 않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에 우리 인민은 오늘도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다. 이런 식인종무리, 살인귀들에게서 자비와 관용을 바라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눈뜬 소경이 되여 무맥하게 목숨을 빼앗긴 수천수만의 령혼들이 터치는 피의 절규, 계급투쟁의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견결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영원히 변할수 없는 계급투쟁의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적들과 맞서 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약자앞에서는 허세를 부려도 강자앞에서는 비굴하게 수그러드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사생결단, 여기에 반제계급투쟁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사실 신천땅에 기여들었던 미제침략군과 치안대놈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물론 총을 쥔 놈들과 맞서 싸우는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수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는데 마지막피값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달라붙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지 않았을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게 된것도 중요하게는 계급투쟁을 포기한것과 관련된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고 국가의 독재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사회전반에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죠아평화주의가 만연되게 되였으며 적대적요소와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 사람들의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이 확대되면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전환되여 인류가 핵참화를 입게 된다느니,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느니 하면서 반제투쟁을 거부하였다. 력사적경험은 반제계급투쟁의 칼날이 무디여지면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승냥이는 양으로 변할수 없고 독사는 열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다.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유화정책에 기대를 걸거나 계급적원쑤들이 스스로 굴복하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계급투쟁에서의 타협과 양보, 탈선은 자멸의 길이다.

계급투쟁은 피할수도 물러설수도 없고 중단할수도 없는 사활적인 투쟁이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과거를 잊는다는것은 곧 계급적근본을 잊는다는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생활과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력사는 결코 영화나 책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쪼아박아야 하고 어느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바로 계급투쟁의 교훈이고 진리이다.

지금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 제도와 사회주의생활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천만부당하고 비렬한 모략과 날조로 우리 공화국을 헐뜯다못해 무엄하게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노리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극악한 책동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멸적의 의지로 끓게 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반제계급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주적관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주되는 적은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이다. 이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의 반제계급투쟁사의 총화이며 철리이다.

미제와 일제는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첫날부터 살인과 략탈을 도락으로 삼으며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덧쌓아왔다. 반세기이상 민족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는것도, 남조선에서 나어린 녀학생들이 장갑차에 깔려 죽는것과 같은 참극들이 매일같이 빚어지고있는것도 다 미국놈들때문이다. 오래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방대한 자원을 략탈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일본반동들은 오늘도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겠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누구나 위험한 혁전쟁, 세균전까지 획책하며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날뛰는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한다.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숭미, 공미사상이 골수에 꽉 차고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의식을 체질화한 식민지주구이고 민족의 반역자이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의하여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사태에로 치닫고있다. 우리는 괴뢰역적패당도 계급투쟁의 주되는 대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적들의 무모한 동족대결책동과 《종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앞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자만이 계급적원쑤가 아니다. 계급적원쑤들은 죽어자빠지는 순간까지도 우리 제도에 대한 앙심을 버리지 않고 발악적으로 책동한다. 우리는 당의 령도업적을 말아먹으려고 하는자들, 당적, 계급적원칙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쓸게 하려고 하는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가차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은 반제계급투쟁의 백승의 기치이다.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총대를 동반한다. 이 세상에 총칼에 의거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없다. 힘이 약하면 짓밟혀야 하고 노예가 되여야 하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가 반제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승리만을 떨치며 배심든든히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총대가 강했기때문이다.

우리는 무적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의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반제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억척의 지지점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교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우리의 제도와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원쑤들을 그 어디에 있건 끝까지 들추어내여 가차없이 징벌하는 조선로동당의 무쇠방패, 무자비한 타격대가 되여야 한다.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원쑤에 대한 서리발치는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을 지니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전쟁은 계급투쟁의 최고형태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전인민적인 결사항전으로 민족의 원쑤, 계급의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죽탕쳐버려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좀먹고 해치는 무서운 독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독가스실은 한번에 수백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방송은 한꺼번에 수십만명도 〈죽일수〉 있다.》고 하면서 반사회주의선전공세에 자금을 아끼지 않고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퇴폐적인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적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혁명의 1세, 2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세대, 새 세대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타락시키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목적이다.

계급적원쑤들과의 대결은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사상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죠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지금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수호전과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은 한시도 늦추거나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현시기 반제계급교양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이 사업을 중단없이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나라에 대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력사를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의 쇠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원리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계급의식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유전되는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잊지 않고 계급투쟁의 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적원쑤들은 우리가 6.25를 잊고 마음의 랑개를 늦추는 그 순간을 노리고있다.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모든 문제를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반공화국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는 심정으로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지난해 11월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다 이곳에 와보아야 한다고, 복수결의모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참관자들이 원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신천박물관과 수산리계급교양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이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각지에 꾸려진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인민이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주제의 예술공연과 영화관람,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만행의 체험자, 목격자,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감히 우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추악성과 악랄성을 폭로단죄하는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계급교양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계급교양관 강사들은 군인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전초선에 서있다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맡은 초소들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이 남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계급투쟁의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3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로씨야 정일봉명칭 울리야놉스크주 로조친선협회에서 1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정일봉명칭 울리야놉스크주 로조친선협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크루글리꼬브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울리야놉스크주위원회 비서 아. 웨. 꾸린느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타이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티라꾼 니욤 주조 타이왕국 특명전권대사가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타이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23일 강계시에서 진행되였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김재룡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4(1955)년 7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안의 수십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자강도안의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계시와 장강군, 전천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시, 군들을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다수확작물을 많이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나날 렬차에서 숙식하시면서 희천시안의 기계공장들과 로동자합숙 등 여러 단위들과 로동자가정을 찾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중요회의들에서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자강도를 끊임없이 찾으시여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60년간 도는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자랑도로 천지개벽되였다고 말하였다.

당이 지펴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의 CNC화가 실현되여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이 일떠서 자강강의 불야경이 펼쳐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남새 등 농업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나고 누에고치생산을 늘여 잠업도, 비단도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훌륭히 일떠선 버섯, 온실남새, 축산물생산기지들이 큰 은을 내고있으며 강계시를 비롯한 도안의 곳곳에 선경거리, 선경마을이 일떠서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령적유훈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농산과 축산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우리 식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한평생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절세위인들의 구상과 념원을 더 활짝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

【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되게 되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앞둔 혁명의 수도 평양은 크나큰 환희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는 역구내는 대회참가자들에 대한 축하의 열기로 설레이고있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을 태운 렬차들이 역에 들어섰다.

녀성취주악대가 주악하는 《**김일성**대원수만만세》,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7.27행진곡》 등의 노래선률이 역구내에 울려퍼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관계부문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맞이하였다.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살던 평양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며 영광의 대회에 불러준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신뢰의 정이 어려있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대회참가자들을 태운 뻐스를 향해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거목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뿌리답게 삶을 더욱 빛내이며 후대들이 불타는 충정과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대상설비생산 결속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라남의 로동계급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덩지가 큰 천정기중기생산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여러대의 권양기를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해당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것과 함께 모든 로력과 내부예비를 총집중하여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주타격방향을 가공부문에 돌리고 여기에 련합기업소적인 력량을 집중시키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열풍을 일으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주강직장과 제관직장, 단조직장, 주물직장을 비롯한 소재부문 직장들에서는 작업반별, 기대별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덩지가 큰 소재생산을 한주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수십에 달하는 제관품제작을 3일동안에 해제끼였다. 주강직장에서는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련속용해를 보장하여 매일 주물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공격전이 소재부문의 모든 직장, 일터마다에서 치렬하게 벌어져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소재들을 생산하였다.

소재부문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가공부문 직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채탄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링반을 비롯한 대형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천정기중기생산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조립작업반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제기일내에 무조건 수행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어려운 부분품조립을 10여일동안에 해제끼였다. 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현장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분리식가공방법을 비롯한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조립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마광기직장과 사슬콘베아직장, 콘베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대들의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천양기생산을 40일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함경북도청년동맹위원회의 힘있는 지원과 화선식경제선동은 대상설비생산에 떨쳐나선 라남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한층 높여주었다.

특파기자 리은남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강철의 령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2)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이 흘렀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위대한 전승이 가져다준 환희와 격정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에 넘치고있다.

뜻깊은 전승절을 앞두고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고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고있다.

참관자들과 함께 작전판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매 단계마다 명확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령군술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였습니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작전판의 첫 전시실에 들어서니 전략적 및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의 운명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을 때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후퇴나 방어가 아니라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단호히 대답하도록 하시였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이건 약한 나라이건 불의의 전쟁개시로 선제타격을 받으면 일시 후퇴하여 력량을 수습한 다음 반공격에 진입하는것이 기성관례였다.

하지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전선정황을 순간에 꿰뚫어보시고 전전선에 걸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전전선에서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였다.

전쟁 첫 시기부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 전쟁의 전반적행정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 우리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것이였는가를 보여주는 작전판의 전시물들에서 눈길을 뗄줄 모르는 우리에게 강사는 서울해방작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노도와 같이 진격한 인민군부대들은 서울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괴뢰군의 작전예비대인 3개 사단과 38°선지역에서 밀려난 패잔병들, 경찰들을 포함하여 적들의 주력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력량이 완강한 방어진을 구축하고있었다.

일반적으로 적방어의 가장 약한 곳을 아군의 주타격방향으로 하여 타격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승리를 마련해나가는것이 공격의 전파를 올릴수 있는 원칙으로, 공격전의 상례로 되여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약한 방향이 아니라 적기본집단이 집중전개되여있고 화력밀도도 가장 높은 서울을 주타격방향으로 선정하시였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군사리론과 경험에 따른다면 하나의 《모험》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강사는 적의 심장부에 력량을 집중하여 첫랑에 된매를 안김으로써 단한차례의 공격작전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전면적붕괴에로 몰아넣자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해방작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한개 대대력량의 전략적소부대를 먼저 서울시가에 침투시켜 6월 28일 새벽 괴뢰륙군본부를 비롯한 적의 중요지휘거점들과 통치기구들을 습격하도록 하시였다.

결과 력량상우세를 믿고있던 놈들의 내부는 순간에 혼란와해되였으며 인민군부대들의 총공격은 몇시간만에 승리적으로 결속될수 있었다.

그날의 인민군용사들의 전투행동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여러 전시물들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서울해방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은 감명속에 새겨안을수 있었다.

참으로 서울해방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주체전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승리한 전투였다.

적들이 숨돌릴 사이없이 련속공격작전으로!

군사전법상 공격작전에서 한작전이 끝난 다음 소모된 력량과 작전물자들을 보충정비하고 타격집단을 재편성하는 준비단계를 거치게 되는것은 오래동안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군사리론으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해방전투에 이어 독창적인 련속공격작전에로 인민군부대들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전전선에서 높은 공격속도를 보장하고 승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오산전투와 대전해방전투에 이어 적들에게 숨돌릴 사이없이 련속타격, 련속공격을 들이대여 공격성과를 확대함으로써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세계전쟁사상 보기 드문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펼치신 비범한 련속공격작전은 빠른 시일안에 공화국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 강사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참관자들은 총포탄이 울부짖던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펼쳐졌던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전하여주는 하나의 전시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실물그대로 형상되여있는 철다리와 침목우에 있는 사적승용차,

옛모습대로인 승용차를 경건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려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가신 림진강전선길이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어찌 림진강전선길뿐이랴. 불비속을 뚫고 전연에 위치한 전선사령부를 찾으시여 백승의 지략과 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

진정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가신 전선길에 위협천만한 순간들은 그 얼마였던가.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주체적인 군사전법들이 바로 그 전선길에서 마련된것임을 깊이 새겨안게 하는 뜻깊은 전시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령군술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호언장담하던 《포위》기도의 약점을 환히 꿰뚫어보시며 계획적으로 후퇴를 조직하고 새로운 반공격집단을 형성하신데서도, 적배후에서 련합부대들이 제2전선을 형성하고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지휘밑에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능숙하게 벌리도록 하시여 전쟁의 유리한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놓으신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의 제3계단과 제4계단을 이루는 새로운 반공격전과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은 미제의 숨통을 드세게 조였다.

전선동부를 타격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기도가 아직은 작전문건에만 올라있던 때 적들은 전선서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전선동부를 노리고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강사의 해설에서 참관자들은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전선동부의 1211고지를 비롯한 전략적요충지들을 지켜선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였다.

1211고지가 조국의 고지, 영웅의 고지로 거연히 솟아 빛날수 있은것도, 적들이 그처럼 요란하게 떠들던 《하기 및 추기공세》, 《신공세》가 참혹한 패배의 운명을 면치 못한것도 우리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사실 그때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들은 한다하는 서방나라들의 군참모장들과 장성들이 이마를 맞대고 고안해낸것들이였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그 어느 병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앞에 그 모든 작전계획들은 파탄되였으며 괴멸사단들과 패전장군들의 수치스러운 이름이 력사에 새롭게 기록되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그이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조선의 힘을 미제가 어찌 당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은 곧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참관을 마치고난 우리에게는 다음의 생각이 더더욱 굳어졌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60여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앞으로 세계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것인가.

미제가 감히 전쟁을 일으킨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전승의 환호성을 터칠 영웅적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승리자의 모습을 다시금 목격하게 될것이다.

채 히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화의 나날 전선부대들과 후방을 현지지도하실 때 리용하신 승용차를 가슴뜨겁게 돌아보고있는 참관자들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불멸의 전승업적 만대에 빛내여가리

각지 당조직들에서

전승절을 계기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성, 중앙기관의 당조직들과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와 전승혁명사적관 참관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 희천시, 우시군, 동신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고산진혁명사적지, 향하혁명사적지, 연풍혁명사적지, 류동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에 새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참관사업을 조직별로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사적건물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검박하신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신의주시, 룡천군, 창성군, 동창군, 천마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처절하였던 나날에 도안의 여러곳에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창골혁명사적지, 유평혁명사적지, 속사골혁명사적지, 대유동혁명사적지, 산두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더욱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민주선전실, 장산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에 당세포총회를 지도해주시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자가 될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회창군, 문덕군, 평원군, 안주시, 개천시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성홍혁명사적지, 원화혁명사적관을 비롯한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원산시, 법동군, 판교군을 비롯한 강원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룡포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적극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뼈와 살로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해설모임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어떻게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는가를 더욱 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을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운영에 큰 힘을 넣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량강도와 함경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영화들과 혁명소설들을 가지고 감상발표모임을 잘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마다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남포시와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도서들과 혁명전설들을 가지고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혁명사적지참관과 도록해설모임, 영화감상발표모임, 읽은책발표모임을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불멸의 전승업적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후복구건설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활발히 벌리고있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끝없이 충실할 신념과 의지를 천백배로 다져주고있다.

전승절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절세위인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전승세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전에 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어길수 없는 사업준칙

전쟁로병들을 존대하는 기풍

지난 7월 23일 룡강군안의 전쟁로병들이 평양으로 떠나갔다. 그들을 바래주러 나왔던 군당책임비서 김성철동무는 전쟁로병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부르며 전쟁시기 세운 그들의 공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책임비서로 온지 얼마 안되는 그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있을가 하는 의문에서였다. 그러나 군당일군들은 알고있었다.

김성철동무가 군당책임비서로 임명되여와서부터 군당일군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사업준칙이 있다.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기 전에 쪽쪽 전쟁로병들의 명단을 보고 떠나는것이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당 단위 일군들에게서 전쟁로병들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기풍이다.

땔감문제, 집보수문제… 로병들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혈육의 정으로 풀어주는것을 당일군의 본분으로, 의리로 여기는 군당책임일군의 사업기풍은 군당일군들의 거울로 되였으며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하기에 군당일군들은 아래단위에 나갈 때에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걸린 문제는 즉석에서 풀어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준칙으로 여기게 되였다.

이 얼마나 전승세대에 대한 고결한 마음과 의리가 비껴있는 사업준칙인가.

잣나무림에 깃든 사연

동창군 대유로동자구에 가면 10정보의 잣나무림이 있다.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

5년전 1월 어느날 최응룡전쟁로병이 사무소초급당비서 김송단동무를 찾아왔다. 그는 초급당비서에게 벌거숭이가 된 마을의 산들이 눈앞에 얼른거려 잠들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로병들이 힘을 합쳐 돌이 많은 저 마을뒤산에서부터 나무를 심자고 약속하고왔다고 하였다.

그때 초급당일군이 전쟁로병들의 결심을 지지한것은 그들의 그 고결한 애국의 넋과 마음을 새 세대들이 따라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초급당일군은 삽, 호미를 비롯한 작업도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신발도 마련하여 보내주게 하였다.

명절날은 물론 생일날에도 전쟁로병들의 집을 찾고 여느날에도 자주 찾아갔다. 땔나무도 보장해주고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군 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400㎡의 잣나무, 아카시아나무양묘장이 생겨나고 산들에는 애지중지 키운 수만그루의 잣나무가 푸르싱싱 자라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전쟁로병들의 애국적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두가 전승세대들이 지닌 투철한 조국수호정신, 뜨거운 애국주의정신을 따라배우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 실효는 대단했다. 온 로동자구에 나무심기열풍이 몰아친것이다.

그러니 전쟁로병들은 이 땅에 10정보 잣나무림만이 아니라 애국자의 대부대, 애국의 숲을 펼쳐놓은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장 철 범

◁수필▷

근위군기앞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나에게 배우 깊은 인상을 남긴 전시물이 있다. 근위부대관에 전시되여있는 근위군기들이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 용감히 싸운 영웅적근위병들의 군상처럼 안겨오며 나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 기발들,

그 근위군기들마다에는 얼마나 깊은 추억들이 새겨져있는것인가.

노도로 질풍쳐 단숨에 서울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며 1211고지방어전투를 비롯한 격전들에서 원쑤들을 전률케 한 보병사단,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미제의 공중비적들을 가을의 락엽으로 만든 비행련대…

하나하나가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전설같은 무훈담들을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들이여서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정규무력건설사에 있어서 너무도 청소한 조선인민군이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와의 전쟁에서 이렇듯 많은 근위부대들을 낳은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이름 못할 흥분을 안고 근위군기들을 바라볼수록 그것이 결코 년대의 상징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지금도 반미정녕 그것은 단순히 추억만을 불러오는 전시물이 아니라 오늘도 전군을 위훈에로 부르는 진격의 기발이며 대를 이어 승리의 력사를 계승해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성스러운 기발이다.

이런 생각을 더듬는 나의 뇌리에 문득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졌다.

14명 육한자폭용사들을 배출한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부대가 앞으로 항공대결전의 전초선에서 끊임없이 새겨지는 위훈과 더불어 세차게 펄럭이는 기록으로 안겨왔다.

그렇다. 이 시각도 근위군기들은 펄펄 휘날리고있다. 전화의 포화속에서 영용한 근위병들이 붉은 피를 아낌없이 바치며 높이도 떠올렸던 근위군기들에 오늘은 새 세대 병사들이 훈련의 땀방울로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들이 빛나고있다.

2015년의 첫 명포수의 영예를 지닌 근위부대포병들이 긍지높이 부르는 《근위부대자랑가》에 뜨겁게 실려오는것은 무엇이던가.

전세대들의 피가 스민 근위군기들을 승리의 기발로 영원히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이다.

근위군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가 이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개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불러일으키는데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취재과정에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직관선동을 통하여 조국수호정신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이였다.

탄광종합속보판과 갱, 직장, 중대속보판들에는 리수복영웅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과 함께 영웅이 남긴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가 두드러지게 게시되여있다. 속보판에는 리수복영웅처럼 살며 투쟁하는데서 모범적인 혁신자들이 소개되고있다. 갱, 직장, 중대들의 하루작업조직과 총화도 이 직관물앞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 종업원들이 리수복영웅을 형상한 직관물앞에서 그날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결의도 다지고 영웅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하루일도 총화하는것이 하나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된것이다.

초급당위원회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직관물을 통해 진행한 목적이 있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영웅의 모습을 늘 가까이에서 보면서 영웅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그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살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시간을 따로 내여 사람들을 모여놓고 교양사업을 하는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직관물을 통해 교양받는 좋은 공간으로 되기때문에 이것을 중시하게 된것이다.

그 실효는 컸다.

일군들이 로동자들을 모여놓고 1950년대의 방위자들처럼 살며 일하자고 호소나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탄부들은 누구나 영웅의 시를 마음속으로 읊어보면서 자신을 수양해나갔으며 영웅앞에 떳떳하려는 자각을 안고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해 분발하게 되였다.

말그대로 《리수복영웅과나》의 주제로 일관된 직관선동은 일군들과 당원들, 로동자들이 조국수호정신을 뼈에 새기고 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한 혁명학교파정안으로 된셈이였다.

영웅의 넋으로 심장이 고동친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영웅이 보여준 조국수호정신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탄부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높은 석탄생산실적을 안아왔다.

사상교양사업에서는 내용과 함께 그 형식과 방법도 중요하다.

전승세대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있는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의 값높은 삶을 빛내인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선군혁명령도의 상징 철령기슭에서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에 즈음하여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온 365일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7월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였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그 나날 여기 철령아래 청춘과원은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더욱더 몰라보게 전변되였다.

10여만대의 콩크리트지지대를 세우고 과수원변두리에 100여㎞의 쇠그물울타리치기 완성, 수백동의 살림집을 보수, 자력갱생기지들에서 60여만장의 기와와 270여t의 환강을 생산보장, 10여㎞의 도로포장과 40여㎞의 마을구획배수로공사를 진행…

이 자랑찬 성과는 영광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백두산건설부대화선용사들의 충정과 위훈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 철령아래에 하루빨리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을 펼쳐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하나의 념원뿐이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해내고야마는 우리 당의 위력한 전투부대인 백두산건설부대의 영예로운 전통을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여가자.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이런 각오로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대상별, 공정별에 따르는 전투목표가 정해지고 방송선전차, 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이 전투장들에 시급히 전개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되였다.

도로포장전투장에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황해남도려단의 김용진, 리원길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튼튼히 의거하여 방대한 량의 도로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낄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대대별, 중대별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말뚝잠을 자면서도 공사장을 뜨지 않고 완강한 결사전을 벌리였다. 새 작업장갑이나 신발이 며칠 못 가서 다 해지고 터져나간적은 그 얼마였으며 손맥이 없어 배낭끈을 풀어 맞들이와 어깨를 련결하고 달린적은 또 몇번인지 모른다.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만이 차넘치였습니다.》

오늘도 그때를 돌이켜보며 해주시대대의 오기남동무는 말하였다. 도로포장성과가 올라갈수록 혼합물의 신속한 운반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하자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돌격대원들은 대담하게 혼합기를 자동차적재함에 올려싣고 이동하면서 혼합물을 보장할것을 발기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세찬 바람이 모든것을 날려보낼듯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공사에 달라붙은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는 꺾을수 없었다. 그들은 고산과수농장을 하루빨리 현대적인 청춘과원으로 꾸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안고 세찬 바람을 맞받아 굴함없이 내달렸다.

철령과 잇닿은 이 대지를 하루빨리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이런 충정의 마음을 안고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한치한치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갔으며 보통때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었던 방대한 량의 도로포장과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끼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돌격대원들로 하여금 과일보관고건설에서도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였다.

함경북도려단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가 건물내부기둥공사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대대가 맡은 과제는 9m높이의 기둥 8개에 대한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는것이였다. 이때 일군들에게는 한가지 고충이 있었다. 이전에 하던 방법대로 높이 1m정도 되는 휘틀을 가지고 과연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돌격대원들과 마주앉았다.

결사관철의 각오와 담대한 배짱만 있으면 막혔던 길도 열리는 법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앞에 결의한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하자. 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이렇게 불을 지피였다. 이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최진혁, 김충일, 최내식동무들이 높이가 3m정도 되는 휘틀을 만들어 공사속도를 높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이 휘틀을 리용하면 공사속도를 2배이상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휘틀높이를 늘여 조립과 해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기일을 앞당기자.

즉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기둥기초굴착을 빠른 기간에 끝낸데 이어 콩크리트치기전투에 진입하였다. 휘틀조립을 맡은 돌격대원들이 한치의 편차라도 있을세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갈 때 혼합물운반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두배, 세배의 작업속도를 기록했다.

결사관철의 맹세가 모두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사장은 곧 제1선 참호였고 하루하루의 공사계획은 순간도 어길수 없는 전투명령이였다. 너무 피곤하여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돌격대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루전투과제를 다 수행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현장을 뜨지 않았다. 대오의 앞에는 언제나 일군들이 서있었다. 밤을 밝혀도 돌격대원들과 함께 밝혔다.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집단의 위력은 드디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어찌 이들만이랴.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에서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힘있게 내밀 때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에서는 파철확보를 앞세우면서 환강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갔으며 전력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리개의 용맹떨치며 전력보장을 위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평안남도, 남포시려단을 비롯한 618건설돌격대의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산건설부대의 그 이름을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이며 365일을 불같이 달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해나가던 그 나날에 있었던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건설부대의 그 이름을 충정과 위훈으로 빛내인 승리자의 추억을 안고 지난 1년간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618건설돌격대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총공격전에 떨쳐나 완공의 날을 앞당겨오고있다.

—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군령도의 상징인 철령아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낮과 밤들이 흘러갔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이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인민군대지휘관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펼쳐가기 위한 군민협동작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이라는 립장에서 벌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은 대단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신념안고 떨쳐나선 그들은 도로포장공사에서 큰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사에 필요한 연유, 설비,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갔다.

날이 갈수록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고산땅이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변모되여가는 농장마을

농장마을의 면모가 날마다 변모되여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시공지도에 품을 넣었다. 일군들은 건설자재를 앞질러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돌격대원들은 당에서 바란다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보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들은 여러가지 기공구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그리하여 농장소재지마을과 량사분장마을을 비롯하여 이미 있던 600여동의 살림집과 20여동의 공공건물들이 보수되였다. 이와 함께 300여동의 살림집들에 대한 외장재칠하기가 끝났다. 그리고 30여㎞에 달하는 살림집울타리공사가 진행되였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주변에 1만 5 000여그루의 감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였다.

제힘으로 철제품생산기지를 꾸려놓고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에서

최근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꾸린 강철생산기지에서 환강만이 아니라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장에서 수요가 높은 못과 꺾쇠와 같은 철제품까지 만들고있다. 이 사실이 다른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이였다.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정치지도원 안홍학동무는 대대참모부의 한 일군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못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는 즉시 현장에 나가 못박은 자리들까지 하나둘 세여보며 앞으로 필요될수 있는 량을 타산해보던 과정에 점차 생각이 깊어졌다.

지난 시기 대대에서는 주로 환강생산에만 힘을 집중하면서 못같은것은 그시그시 다른데서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못생산이 결코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였다. 고산과수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미 있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못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공사장적으로 년간에 소비해야 할 못도 적은 량이 아니였다.

도처에서 대건설전투가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때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체로 생산리용한다면 나라의 부담을 덜면서도 공사속도를 더 높일수 있지 않겠는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정치지도원은 이 문제를 일군들의 모임에 상정시켰으며 결국 대대에서 못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못은 비록 작은것이지만 대대의 실정에서 그것을 생산하자니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못을 생산하자면 탄소성분이 적은 쇠로 소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강철생산기지의 중주파유도로에서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데 적합한 쇠를 녹여내기 곤난하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혁명열, 투쟁열로 쇠물을 끓이면서라도 자력갱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결심을 가지고 집체적지혜를 합치며 방도를 찾았다.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며 경험도 배웠다. 그 과정에 강철생산을 위해 실어들인 파철중에서 탄소성분이 적은것들을 골라 녹이면 중주파유도로에서도 못생산에 리용할 쇠물을 뽑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 방법을 받아들여 쇠를 녹인 다음 일정한 규격의 환강을 생산하였다. 이것을 보다 얇게 연신하여 못소재를 뽑자면 환강을 다시 열처리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로가 당장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은 남의 힘을 빌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이미 있던 가열로에서 다른 쇠를 달굴 때 그 환강열처리를 함께 하는 방법 즉 가열로의 리용률을 2배로 높이는 방법으로 못을 생산할수 있는 길을 끝끝내 열어놓았다. 이들은 그 기세로 공사장 어디서나 요구하는 꺾쇠도 만들어냈다.

이 사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불가능을 극복한 과학적인 작전

평안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맡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평안남도려단앞에는 7월에 이미 있던 수십동의 살림집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때 려단 정치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1돐을 맞으며 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것을 발기하였다. 일군들의 놀라움은 컸다.

사실 이 방대한 과업을 근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정치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하려는 신념만 확고하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시간쟁취를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승리의 돌파구가 있다.

이것은 불가능을 생각하기 전에 가능성부터 찾아 끝장을 보려는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떠나서는 내릴수 없는 결심이였다.

일군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데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이런 관점에서 집체적지혜를 합치자 좋은 방도들이 나왔다.

우선 건물꾸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닦기와 그옆의 배수로 정리작업을 앞세우기로 하였다. 이것은 자재운반만을 념두에 둔 작전이 아니였다. 도로를 골추 펴고 혼석을 깐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들이 자재운반길을 오가면 다짐작업공정이 저절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후에 이 작업을 하는데 들여야 할 로력은 물론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었다. 배수로를 정리하고 량옆에 돌까지 든든하게 쌓으면 비가 와도 도로의 안전성이 보장되여 자재를 지체없이 운반할수 있었다.

일군들이 작전을 하면서 잘한것은 장마철기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꾸리기작업순차를 바로 정한것이였다. 즉 지붕작업을 선행시키는 동시에 벽체긁기를 하여 비가 올 때에도 내부에서 일할수 있게 하였다.

울타리건설작업조직을 시간쟁취의 원칙에서 한 사실을 놓고보자.

울타리건설에는 건물꾸리기보다 더 많은 품을 들여야 했다. 특히 미장작업인 경우 더욱 그러했다. 미장기능공이 적은 대대들에서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수 있었다. 때문에 일군들은 여기에 미장기능공력량이 강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대대들을 동원시키기로 하였다. 일솜씨가 빠른 이 단위들을 힘껏 떠밀어주면 맡은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 이 단위들에서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게 되였을 때 그 대부분 력량이 다른 대대들을 돌며 울타리미장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해제끼도록 하면 려단의 월전투계획수행기일을 전반적으로 앞당길수 있다는것이 일군들의 타산이였다.

려단에서는 이런 작전에 기초하여 제일 어려운 울타리건설을 다른 려단들보다 앞서 끝내는 등 모든 공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결과 월전투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려단의 경험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데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관점과 투쟁기풍이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23일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이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꾸바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23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조국의 해방과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력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썼다.

이에 앞서 대사관성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하였다.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 도착

씨비 모함메드 레즈크 레즈크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길상봉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 도착

일본과 북남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 대표 미하라 세이스께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이 떠나갔다

은종인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과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단고기료리경연 진행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중복날인 23일에 평양면옥에서 있었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경연에는 인민봉사총국과 평양시사회급양관리국, 각 도 급양부문의 해당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에서는 매 단위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료리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출품한 단고기장과 단고기료리들을 심사하였다.

대동강구역종합식당 의암단고기집, 평안남도의 문덕특산물식당 료리사들이 단고기장의 토법을 적극 살리면서 결들여낸 밥과 양념장, 김치 등은 독특한 맛이 이를데 없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기 지방과 자기 단위의 특색을 잘 살리기 위해 훌륭한 가공솜씨를 발휘한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료리사들의 재능이 엿보이는 단고기갈비찜, 단고기등심찜, 단고기보쌈을 비롯한 료리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예로부터 삼복철 몸보신에 좋은 단고기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에 맞게 단고기료리를 보다 맛있고 영양가높게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우수한 민족음식문화를 활짝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평양단고기집이 1등을, 청류관, 창광봉사관리국이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료리사들과 단위들에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경연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풍습을 잘 살리고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과 료리기술을 높이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에짚트특명전권대사 7월23일혁명 63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에짚트에서의 7월23일혁명 63돐에 즈음하여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수용외무상, 심국룡, 리명산, 서호원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1973년 10월전쟁시기 에짚트인민에게 조선인민이 보내준 아낌없는 지원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호상존중과 협조에 기초하고 있는 에짚트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랍인민의 권리를 언제나 지지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에짚트에서의 7월23일혁명은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에짚트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은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에짚트정부와 인민이 강력하고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한길에서 에짚트인민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에짚트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회창군기초식품공장에서
류다른 종업원명단

회창군기초식품공장에는 류다른 종업원명단이 있다.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 명단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공장정문에서는 밤깊도록 지배인 김성근동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초급당비서 박문규동무였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문으로 들어서는 지배인에게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또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갔댔습니까? 이제는 그 수첩에 올라있는 방문대상들을 우리 공장종업원으로 등록합시다.》

김성근동무는 그가 고마왔다. 언제부터 하고싶었던 말을 초급당비서가 하였기때문이였다.

김성근동무는 수첩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근 10년간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바쳐온 지배인의 남모르는 수고와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슴배여있었다. 초급당일군은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그때부터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의 이름이 적힌 류다른 종업원명단이 생겨나게 되였던것이다.

이 명단과 더불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하는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고 도와주는 과정에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워 뜨거운 공장애와 조국애를 지니게 되였다.

류다른 종업원명단!

그렇다.

이것은 단순히 명부이기 전에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는 거울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선동원의 날 운영을 실속있게

함흥목제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선동원의 날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선동원들의 수준을 높여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매월 계획에 따라 선동원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모든 선동원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선동원의 날 운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한 선동원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최용호

외세의 꼭두각시는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요즘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이 대결광신자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타령을 늘어놓아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괴뢰집권자가 《대화》광대극의 주역으로 나서고있다.

얼마전 극악한 체제대결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난 박근혜는 그 누구에 대한 《지원》이니, 《공동책임》이니 하면서 우리가 《대화의 마당》에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뻔뻔스러운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보다 앞서 괴뢰통일부패거리들은 북남합의의 《존중》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주절대면서 대화가 열리면 여러가지 문제를 론의할수 있다는 말장난을 해댔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에게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씌워 북남관계파국으로 저들에게로 쏠리는 규탄여론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합리화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고 괴뢰당국이 그 무슨 《대화와 압박병행》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소동을 강화하고 있는것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시간이 감에 따라 날로 확대되며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괴뢰당국의 반공화국도발소동은 전적으로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되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북침전략실행의 돌격대가 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는 괴뢰들이 그 무슨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드는것은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괴뢰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반대해나서는것은 곧 북남대화 그자체를 반대하는 반역행위이다.

북남관계문제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문제인것만큼 반드시 북과 남의 당사자들끼리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북남관계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며 그에 의존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북과 남은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히였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것을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초석으로 삼았다면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많은 과제들이 이미 해결되였을것이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을것이다.

그런데 괴뢰당국은 도대체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반대해나섰는가.

남조선괴뢰들은 북과 남이 합의한 자주의 원칙을 유린하고 대화와 협력의 문을 막아버린 장본인이다.

괴뢰들이 존중하는것은 북남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조가 아니라 북남대결을 노린 외세와의 공조이다.

미국은 저들의 지배야망과 침략적리익으로부터 조선반도에 안정과 통일기운이 깃드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력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해온 미국의 죄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나날 민족의 달아오른 통일열기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온갖 간섭과 훼방을 일삼던 미국의 반통일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남조선괴뢰들이 북남합의의 정신을 줴버리고 통일의 방해군, 민족의 원쑤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는 길로 나가고있기때문이다.

올해 우리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싹트던 대화의 기회도 그 누구에 대한 《봉피》나발로 도전해나선 미국의 오바마일당에게 적극 추종하며 《체제통일》망상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뛴 괴뢰패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반공화국압살에 환장이 된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그의 더러운 앞잡이노릇이나 극성스럽게 하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이 그 무슨 《대화》니, 《합의존중》이니 하고 입을 놀려대는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동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머저리가 되고 외세에 굴종하면 노예가 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행위와 동족대결책동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기의 똑똑한 정치철학이나 독자적인 주견도 없는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의 지휘봉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한갖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이 들고나온 《대화와 압박병행전략》이라는것도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위협공갈을 위해 들고나온 대화와 제재의 《두길전략》을 그대로 흉내낸것이다.

최근 미국의 고위정객들과 군부호전광들이 남조선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반공화국제재와 정치군사적압력강화 등과 관련한 꿍꿍이판을 련속 벌리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괴뢰들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대화》를 떠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와의 북침핵전쟁연습과 《인권》모략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으며 지어 독자적인 반공화국제재놀음까지 벌리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이 요구한다고 하여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정보교류에도 주저없이 팔걷고 나서고있다.

외세의 손아귀에 명줄을 내맡기고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들이 북남관계문제, 민족의 운명문제를 론하는 대화의 상대가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우리 민족끼리의 옳바른 정신부터 가지고 침략적인 외세의 머슴으로 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자에게 과연 그런 용기가 있는가.

괴뢰들이 추구하는것은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이며 그들이 꿈꾸는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기 위한 《체제통일》뿐이다. 자주의식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의 발바닥이나 핥고 상전이 써준 북남대결각본대로 움직이며 민족을 망신시키는 역겨운 하수인들은 더이상 우리의 앞에서 《대화》를 운운할 한조박의 자격도 체면도 없다.

우리는 《대화》의 가면을 쓰고 북남관계를 미국의 대조선지배전략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남조선괴뢰들의 그 어떤 반역적인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괴뢰들은 미국을 섬기며 그에 의존하여 우리를 어째보려는 허튼 야망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저들의 취약성만을 더욱 드러내고 파멸의 시각을 앞당길뿐이다.

박 철 준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남조선 각계가 칭송

탁월한 사상과 지략, 뛰여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남조선 각계층은 오늘도 뜨겁게 전해가고있다.

전쟁사연구회의 한 회원은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미국이 북을 반대하여 감행한 전쟁처럼 그렇게 다국적무력이 동원된 례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은 세계면전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밝혔다.

한 군사전문가는 전쟁의 승패는 경제력이나 군사적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군민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 특히는 지략을 펼치고 군민을 령솔하는 령수의 지도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것은 이북의 승리로 끝난 6.25전쟁에서 그대로 실증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네트신문 《참말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한》반도전체를 차지하려고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끝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객관적정세를 면밀히 분석한데기초하시여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공격을 명령하시였다.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의 일념을 간직한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맞서 련전련승을 거두었다.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민심의 광장》에서 각계층 인민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대전해방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세계전쟁사의 그 어디에도 없는 갱도전과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군사전법들로 전쟁에서 승전만을 이룩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부산에 사는 리만길은 김일성주석님의 신묘한 전법앞에 침략전쟁들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미국이 항복하였다, 미군은 인민군이 진격하는 곳마다에서 얻어맞고 녹아났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원의 한 지식인은 동료들에게 지난 6.25전쟁때 최신장비로 무장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반도에로 몰려들 때 누가 감히 이들을 이길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김일성주석의 령도를 받는 이북군민은 그 무력을 타승하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는 남조선 각계층속에는 《아무리 력사를 더듬어보아도 주석님처럼 그렇듯 불멸할 전승업적을 쌓은 위인과 명장은 알지 못한다.》고 한 전라북도의 최호일교수,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존엄과 영예를 떨쳐주신 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구세주, 절세의 위인이시다.》고 칭송한 태양회 회원도 있다.

《지난 6.25전쟁에서 미국이 흰기를 들게 된것은 전적으로 비범한 군사사상과 뛰여난 지략, 무비의 담력과 신비한 전략전술을 지니신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 《6.25의 비극을 7.27전승이라는 패거로 바꾸어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공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등 칭송의 목소리가 서울과 울산을 비롯한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로 반제혁명전쟁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7.27의 전통이 영원히 이어진다는것이 남녘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대전의 한 주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김일성주석님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였으며 인터네트언론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맞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인류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김일성주석의 전설적무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전쟁사연구원은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승전의 력사는 21세기에도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7.27은 민족사에 당당히 기록되고 영원히 경축되여야 한다고 격조높이 웨쳤다.

한 청년학생단체는 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제 어떤 침략세력이든 제2의 6.25를 도발한다면 그뒤에는 반드시 제2의 7.27이 따르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장께서 계시고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우리 겨레는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파쑈폭압통치로 얻을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지난 6월 박근혜가 극우보수분자이며 악질검사출신인 황교안을 괴뢰국무총리자리에 들어앉힌 후 괴뢰패당의 진보민주통일세력에 대한 파쑈적탄압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황교안이 괴뢰국무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당국의 로동악정을 반대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해나선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부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투쟁의 앞장에 섰던 시민단체인 4.16련대를 압수수색하는 폭거가 감행된데 이어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면서 통일교육에 나섰던 전국교직원로동조합 관계자 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파쑈광풍이 몰아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15일부터 3일간에 걸�click 전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의 살림집들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을 벌리고 개인서류들과 콤퓨터들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세월》호추모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을 철창으로 끌어가는 파쑈적탄압소동이 공공연히 벌어졌다.

특히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가 《북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걸고들면서 《리적단체》로 몰아 관계자들에 대한 횡포무도한 체포와 수배소동을 벌리고 《탈북자》쓰레기들을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로 부추기는가 하면 괴뢰정보원을 내몰아 반공화국허위여론조작책동을 벌리는 등 매일과 같이 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로써 지금 온 남조선땅에 신공안파쑈광풍이 몰아치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진보세력들이 《황교안의 첫 작품은 4.16 압수수색》, 《박근혜 〈정권〉이 본색을 드러내며 공안통치를 하고있다.》, 《공안통치가 극성을 부릴수록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것》 등으로 규탄단죄하면서 강력히 항거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결국 박근혜가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쑈교형리인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한것은 파쑈공안통치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제2의 《유신》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로골화하기 위한 권모술수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지난 30년간 검사질을 하면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적단체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해온 악질보수분자이며 극악한 인권유린자, 민주주의교살자이다.

타고난 파쑈적기질로 하여 박근혜의 눈에 든 이자는 괴뢰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끝내 강제해산시켰을뿐아니라 그 관계자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중형을 들씌웠으며 진보적언론인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는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때의 정보원개입사건과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패당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을 온갖 모략으로 덮어버린것으로 하여 《청와대의 파수병》, 《박근혜의 충견》으로 악명을 떨친자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극악한 파쑈광 황교안에게 《국무총리》의 감투를 씌워준 박근혜의 처사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인사》, 《대국민선전포고》, 《공안통치포고령 선포》 등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해나섰다.

박근혜독재정치, 살벌한 공포정치의 돌격대인 황교안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의와 진보,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말살하는 파쑈독재가 살판치고있다.

이런 희세의 인권유린범죄자, 파쑈통치배들이 그 누구에 대해 《인권》나발을 불어대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박근혜가 파쑈악당 황교안을 전면에 내세워 무지막지한 폭압통치에 매달리고있는것은 통일민주세력을 완전히 거세말살하여 집권안정을 보장하고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반공화국대결을 합리화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그러나 파쑈폭압통치로 얻을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과 비참한 파멸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황교안과 같은 파쑈교형리를 끼고 동족대결과 통일민주세력말살에 광분하는 박근혜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참다운 자유와 민주, 통일도 없으며 더 큰 불행과 재난만이 차례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파쑈독재통치를 끝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7월 23일
평 양

반공화국모략과 인권침해의 본거지인 괴뢰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23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10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이 드러나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괴뢰정보원은 2012년 《특군 5163부대》라는 위장명칭으로 외국의 업체로부터 최신해킹프로그람을 사들여다 내외의 수많은 대상들의 콤퓨터와 손전화기 등을 불법감시해왔다고 한다.

이 프로그람을 직접 구입, 관리해온 괴뢰정보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남조선의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괴뢰정보원이 지금까지 해킹프로그람을 리용하여 민간인사찰은 물론 2012년에 진행된 괴뢰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도 개입했을것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힐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괴뢰정보원것들은 해킹프로그람을 대부분 《대북공작활동용》으로 사용하였을뿐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북의 위협에 직면한 엄혹한 현실》이라느니,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느니,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느니 하며 철면피하게 괴뢰정보원을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못할 도발이며 사태의 초점을 딴데로 돌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난 시기 괴뢰패당은 남조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지에 대한 디도스공격사건, 농협은행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공격사건 등 수많은 해킹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북의 소행》으로 여론을 매도하면서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에 광분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그 진범인은 다름아닌 괴뢰정보원이며 우리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 대한 비법적이고 범죄적인 해킹공격, 싸이버테로의 주범도 괴뢰정보원이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괴뢰정보원이 이번에 해킹프로그람을 《대북싸이버테로》를 위해 구입하여 지금까지 87개의 해외콤퓨터와 손전화기에 사용하였으며 그 대다수가 우리와 련계된 IP주소라는것을 실토한것은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킹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괴뢰정보원은 반공화국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동시에 괴뢰독재정권유지를 위해 반인민적인 정보사찰과 테로를 본업으로 하는 민주교살, 인권유린의 본거지이다.

괴뢰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람으로 민간인사찰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고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이미 2012년 괴뢰정보원이 인터네트공간을 리용하여 야당후보를 비롯한 정치적반대파들을 헐뜯고 진보세력을 모독하는 글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 등 불법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사찰행위를 해왔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폭로된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138개의 인터네트 IP주소들은 괴뢰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사회의 각계층, 모든 대상을 다 감시하며 싸이버테로를 감행해왔다는것을 고발하고있다.

특히 괴뢰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람담당자가 자살한것은 괴뢰패당이 사찰행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감행해왔다는것을 스스로 검증해주는것으로 된다.

지금 괴뢰정보원것들이 직원명의의 《성명》발표니, 《안보의 가치를 더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것》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아닌보살하고있는것은 자살사건을 악용하여 민간인사찰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괴뢰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의 주범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4개월에 한번씩 괴뢰정보원의 감청대상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승인해주면서 독재통치, 파쑈폭압정치, 동족대결모략책동을 일삼는것이 바로 청와대의 안방주인이다.

가판은 10년전 야당대표로 있을 때 과거 《정권》의 《국정원도청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니, 《자유, 민주를 짓밟은것》이니, 《개탄스럽고 수치스럽다.》느니 하며 피대를 돋구었던 박근혜가 지금은 시치미를 떼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하졸개들을 내세워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해버리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범죄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박근혜가 직접 관할하는 괴뢰정보원의 모략적정체와 흉악한 진상은 결코 가리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온갖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는 대결광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고 극악한 인권유린의 왕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다.

파쑈독재의 도구이며 동족대결과 테로, 음모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은 즉각 해체되여야 하며 주범들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괴뢰정보원과 같은 악의 본거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와 민주에 대한 꿈과 통일열망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괴뢰해병대가 대규모해상사격연습 획책

21일 남조선의 《한국일보》에 의하면 괴뢰해병대가 이번주 최대열점수역인 조선서해의 섬들에서 대규모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대남침투》를 떠들면서 화력무기들을 모두 여기에 투입하여 불장난소동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이미전부터 괴뢰들은 북과 남이 대치하고있는 첨예한 수역에서 전쟁도발의 불찌를 튕기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괴뢰군이 우리의 불소나기에 얻어맞았던 2010년 11월의 연평도포격전도 바로 군사연습을 구실로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한것이다.

괴뢰패당이 《대화》니, 《교류》니 하고 극성스럽게 외워대면서도 우리의 면전에서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리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는것은 《대화》타령의 기만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면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 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강성국가건설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황남일보사 부장 박혜숙동무

뜨거운 진정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힘있는 정치사업, 들을수록 실감있고 많은것을 깨우쳐주는 강연!

이것은 황해남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인 박혜숙동무의 강연에 대한 대중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자.

그는 언제나 뜨거운 진정을 바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 그들의 심리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깊이 파악한 다음 그에 맞게 강연내용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강연을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도안의 강연강사들이 지난해 봄철에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에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벌릴 때의 일이다.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에 나갔던 박혜숙동무는 농사일에 늘 앞장서던 한 녀성농장원의

실적이 떨어지고있는 사실을 알고 지체없이 그를 찾아갔다.

만나보니 그는 홀몸으로 두 자식을 키우고있었는데 그들이 앓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정적부담이 컸다. 박혜숙동무는 그 녀성농장원과 한식솔이 되였다.

그와 함께 농사일도 하고 그의 가정일도 적극 도와나섰다.

북지협동농장에 갈적마다 친어머니심정으로 그의 가정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가정용품들과 보약들도 안겨주면서 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의 이런 뜨거운 진정은 그 녀성농장원을 분발시켰다.

박혜숙동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우리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줌으로써 혁신자의 영예를 계속 떨칠수 있게 하였다.

박혜숙동무는 이렇게 뜨거운 진정을 바쳐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을 키워내는 과정에 체험한 생동한 사실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를 최대로 높일수 있었다.

그가 현실체험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것은 618건설돌격대 황해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과 함께 허리치는 생눈길도 앞장에서 헤치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화선식강연활동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게 그는 투쟁과 생활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실지체험을 통하여 대중의 마음과 심리를 알고 그에 기초하여 강연작전을 세우고 강연을 실감있게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를 최대로 높이게 되였다.

지난 15년간 박혜숙동무는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고 5대교양자료들과 성구, 속담, 유모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여 강연에 활용하였으며 도안의 1 200여개의 단위들에서 30여만명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 600여차에 걸치는 강연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뜨거운 진정을 바치며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강연준비를 실속있게 하는 원칙을 스스로 제기하고 구현하는것을 체질화한 박혜숙동무이기에 그가 진행하는 강연은 언제나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순천공업대학 교원 김창식동무

강연의 실효는 강사의 강연실력이 결정한다.

이것은 순천공업대학 교원이며 순천시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인 김창식동무가 체험속에서 찾게 된 주장이다.

타고난 실력가란 없다. 김창식동무 역시 강연강사의 사업을 시작한 첫 시기에는 이 문제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는 20년전 시급기관 일군들앞에서 첫 강연을 진행한 그날의 그 괴로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청강자들의 눈빛에서 자기의 강연에 대한 평가점수를 읽었기때문이였다. 그날 그는 강연의 실효를 높이지 못한 문제를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강연제강을 그대로 읽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유능한 정치활동가가 되자면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연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풍부한 화술기량도 소유해야 한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자신의 강연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스스로 제기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 당정책을 깊이있게 학습하였으며 교육사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옳은 발음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한글자한글자 씹어가며 발음련습도 하고 글자를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뜻을 새겨가며 통속적으로 말하는 훈련도 하면서 화술기량을 높이는데 큰 품을 들였다.

이런 불같은 정열을 쏟아붓는 과정에 그의 강연실력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강연의 높은 실효로 나타났다.

《조국찬가》는 주체음악의 만년재보이며 영원불멸할 애국송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였을 때였다.

한주일이라는 시간을 바쳐가며 강연준비를 한 그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선군조선의 찬가이며 주체음악예술의 본보기작품인 명곡에 대한 깊이있는 해설을 통해 청강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기 위해 시문화회관 관장과 시기동예술선동대 대장을 비롯한 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심오한 내용을 깊이 파악한 다음에야 연단에 나섰다. 손풍금을 직접 타면서 《조국찬가》에 담겨진 사상예술적특징을 통속적으로, 설득력있게 해설하는 그의 강연은 첫 순간부터 청강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으며 매우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그는 강연을 연락에서만 진행하지 않았다. 대중이 일하는 현장이 곧 그의 강연장소였다.

최근 몇해동안에만 하여도 그는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에서 조직한 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되여 도와 시안의 중요탄광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500여회의 화선식강연활동을 벌림으로써 최후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학위학직소유자인 그는 화학설비와 관련한 2건의 교과서를 집필하고 20여건의 과학연구소론문을 발표하여 교육사업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면서도 강연강사로서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순간순간을 불같이 살아왔다.

강연이 헛방을 모르는 명중탄이 되여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실효성있는 강연으로 되자면 결정적으로 강사의 강연실력이 높아야 한다는것을 김창식동무의 체험은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탁월한 전법으로 승리만을 안아오신 군사의 영재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언제 한번 패배를 몰랐다고 하던 미제를 통쾌하게 짓뭉개버리고 조선의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긴 전승의 그날로부터 62돐이 되여오고있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1950년대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싸워 승리를 이룩한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그 기적을 안아오신분은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 3일만에 우리 공화국을 점령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군대의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에 의해 미제는 전쟁개시 3일만에 오히려 반동의 아성인 서울에서 쫓겨나고 보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는 멀리 금강이남으로 패주하게 되였다.

미제는 군사적요충지인 대전을 《립시수도》로 정하고 금강과 소백산줄기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인민군련합부대들의 반공격을 최종적으로 저지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적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도하할수 있는 유리한 지점마다 《제일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고 하는 악명높은 미24사 19련대와 34련대 등 방대한 력량에 사단포병의 주력까지 배치하였다. 뿐만아니라 금강방어를 위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공주의 금강다리와 신촌의 철다리들을 폭파하였으며 도하에 리용될수 있다고 생각되는것은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그리고는 금강계선이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떠벌이면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생긴이래 9 000회 가까이 진행한 전투경험을 보아 이만하면 그 어떤 강적과 맞다든다 해도 《3년간은 문제없이 지탱할수 있다.》고 나발을 불어댔다.

미제의 어용출판물들도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영웅적이며 로련한 진지확보 및 방어전투》가 벌어질것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금강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은 3년이 아니라 단 이틀만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말았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지략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적들의 무력증강으로 하여 변화된 당시의 군사정치정세와 전선정황을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금강계선에 최선을 다하여 방어진을 치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다고, 전방어구간에 방어진을 치지 못하고 도하에 유리한 몇개의 지점에만 병력을 집중하다나니 방어에 공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적의 이러한 약점을 리용하여 강행도하를 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령활하고 신묘한 전술에 따라 우리 인민군련합부대들은 기세충천하여 금강도하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기였다. 이 전투에서 영웅적인민군대는 하루동안에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각종 포,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로획하였다.

일본의 전쟁사전문가들은 조선인민군의 금강도하전투에 대하여 《북조선의 제3, 제4사단은 군의 주력으로서 미24사를 급속히 추격하고있었는데 미군의 기도를 포착하고 이튿날인 7월 14일 금강을 기습도하하여 우선 공주방면의 미34련대를 격파하였으며 이어 …태평리정면의 미19련대를 괴멸시켰다. 이러한 전투에서 북조선군대는 언제나 미군방어진지의 짬새로 침투하여 그 후방을 습격하였으며 혹은 그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북조선군대는 미군이 일찌기 맞다들어본적이 없는 정면공격과 기습전 등 두가지 전법을 구사하는 맞서기 힘든 상대였다.》라고 전하였다.

후날 우리 인민군련합부대의 승리적인 금강도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짜주신 작전의 하나였다는것을 안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은 그이께서 세우신 작전들은 하나같이 세계전쟁사에도, 어느 나라의 병서에도 없는것이였다, 간혹 그 어떤 전술적조치를 취하였다 해도 이미 때를 놓친것이였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의 첫 작전인 인천-서울지구 및 락동강계선의 방어를 위한 작전에서 우리 인민군련합부대가 거둔 빛나는 승리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영웅적인민군련합부대의 반공격에 의하여 전전선에서 거듭되는 패배를 당한 미제는 그를 만회하고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적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야망밑에 태평양방면에 있던 륙해공군의 총병력, 지중해함대의 일부, 미국본토의 지상군과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등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였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그해 8월 23일 일본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의 알려지지 않은 한 비밀지하실에서 미군부우두머리들의 작전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작전회의에서 대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락동강계선과 후방을 련결하는 기본통로인 서울지역을 순식간에 차단함으로써 인민군대의 기본력량을 《포위소멸》할 야심적인 작전계획이 세워졌던것이다.

미제는 이 작전을 제5차 유엔총회전에 결속하려고 하였다. 유엔총회마당에서 저들의 《강대성》을 시위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9월 13일에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당시 유엔총회는 9월 19일에 개막하게 되여있었다.

미제는 《크로마이트 100-B계획》이라는 암호로 불리운 인천상륙작전을 벌리면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인 1944년 6월초-7월 하순 프랑스의 서북부에서 미영련합군이 진행한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를 망상하였다.

3~5일만에 서울을 점령하려던 미제의 현란한 꿈, 제5차 유엔총회전까지 인민군대의 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하려던 망상은 그야말로 개꿈이 되고말았다.

당시 비상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포위소멸》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예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천-서울방어전을 완강히 벌리고 락동강계선에서 방어를 강화하여 적의 공격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킬수 있는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대는 9월 28일까지 서울을 견지하면서 미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기였다. 인천-서울방어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그후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인천-서울방어작전시 월미도용사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은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세계전쟁사에도 4문의 포를 가진 1개 해안포중대와 보병 1개 중대의 력량이 약 1 000대의 비행기와 수백척의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과 싸워 큰 타격을 주고 0.66㎡밖에 안되는 섬을 3일간이나 고수한 영웅적사실은 기록되여있지 않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미제를 타승하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의 갈피마다에는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랑찬 전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이란핵협상타결을 우리와 련결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최근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기화로 미국이 조선의 핵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리해관계가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론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의 핵억제력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서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에짚트의 웹싸이트 《아흐람 온라인》은 조선이 이란식핵협상타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자국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므로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이란핵합의를 끊임없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조선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와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 로스발뜨를 비롯한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과 이란의 이르나통신, 에짚트의 사다 엘 발라드TV방송,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TV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신문 《존 부르스》,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CNN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조선 자국의 핵억제력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 《이란핵협상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 등의 제목을 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대통령 고도기술을 발전시킬것을 호소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한 담화석상에서 고도기술을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로씨야의 경쟁자들과 반대파들이 정치적목적을 위해 온갖 제재방법을 다 적용하고있다고 하면서 현대적인 나라를 건설하자면 자체의 고도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고도기술제품생산자들을 적극 지원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나라의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수리아내무상이 17일 안전무력의 전투준비상태를 료해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수호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수리아무장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해치는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 벌려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에 대한 믿음과 높은 투쟁정신을 지닌 수리아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수리아군대가 반테로전에서 전과를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니시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40명의 테로분자들을 소멸하였으며 17일에는 라따끼아도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여 수십명을 살상하고 도의 많은 농촌지역들을 해방하였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하싸카시에 대한 테로분자들의 수차례의 공격을 물리치고 100여명을 소탕하였다 한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알제리근로자총동맹, 앙골라 엠쁘로에총회사, 나이제리아 아부쟈 인테리어가구공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인디아 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륙해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군과 구일본군잔당들까지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수적 및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즉시적인 반공격과 강력한 적후 제2전선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그리고 갱도전, 비행기 및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앞에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는 산산이 부서지고말았다.

미국은 끝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은 건국이후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몰랐다는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되였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타승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7.27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되게 되였다.

앙골라 엠쁘로에총회사 총사장은 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국방력강화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국제기구,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특집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국제기구와 나이제리아단체가 13일과 1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천하무적의 조선인민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 《전승 62돐》 등 제목의 글들을 올렸다.

글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한세대에 미일 두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의 백승의 전통을 빛내이신 선군령장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조선통일의 근본장애》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날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군사기술적력량은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였었다. 그러나 그처럼 강하다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군과 구일본군잔당들까지 들이밀었지만 얻은 결과는 수치스러운 패배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극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자기를 건드리는자가 행성의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징벌할수 있는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만일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본토는 불바다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반항공구분대들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였다.

군관구의 18개 사격장에서 1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 000명이상의 군인들과 약 5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이글라》와 《웨르바》를 비롯한 이동식대공미싸일종합체들로 여러가지 공중목표들에 대한 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17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물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수리아정부가 최근 수도시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 수상 와일 나디르 알할끼는 테로분자들의 책동속에서도 현재 시민들에게 먹는물수요량의 70%를 보장하고있으며 그 안전성과 위생성도 담보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수원지를 개발하고 물분배에서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먹는물을 원만히 공급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해방지조치

인도네시아정부가 최근 화산분출에 의한 재난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북부말루꾸주에서 가말라마화산활동이 활발해지는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 주변에서 살고있는 1 500여명의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화산분화구로부터 반경 1.5㎞구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하였다.

항암제 개발

싱가포르에서 최근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였다.

《ETC-159》로 명명된 항암제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그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 림상실험단계에 있는 이 약은 앞으로 취장암과 란소암 등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한다.

항공운수부문 성과

면마에서 항공운수부문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에 양곤국제비행장을 통과한 려객수가 그 전해에 비해 49.5% 늘어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일본 도꾜에서 18일 당국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기자와 작가, 사회활동가들을 비롯한 약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아베의 정책을 용인할수 없다》 등의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모두가 힘을 합쳐 법안을 강행채택하려는 당국의 기도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서 4일 당국의 부당한 천연가스채취계획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국이 미국회사와 짜고 해안지역에 매장되여있는 천연가스를 채취하기로 한데 대해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2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수상관저에 몰려가 미국과 당국의 천연가스채취계획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계획을 당장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랄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 근로자들이 1일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긴축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인권보고서》발표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세상에는 자기의 어지러운 허물은 생각지 않고 찍하면 남을 걸고들면서 혼시하려드는데 이골이 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륜수없는 미국이 하는짓들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해마다 공개하고 그것을 통하여 해당 나라들의 《민주화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보고서》발표놀음도 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너절한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것처럼 떠들었다.

얼마전 미국무성의 한 차관보는 《2014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특별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사기와 협잡으로 꾸며낸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악의에 차서 떠벌이며 그 무슨 《변화》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그야말로 주제넘는짓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릴 야망을 어떻게 하나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에 이르고 온갖 사회악이 살판치는것으로 하여 력사의 무덤을 향해가고있는 미국이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세계에 빛을 뿌리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나날이 과시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에 흙탕칠을 해보려는데 그 더러운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저들의 인권문제보따리는 등뒤에 감추어놓고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 흉질하는 미국이야말로 고약한 시비군이며 다른 나라 사회제도를 뒤집어엎으려고 날뛰는 흉악한 음모군, 모략군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더러운 보고서는 오직 미국식《인권기준》에 맞추어 편견과 날조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평가하였다.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작정 모든 나라들에 저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인권기준》은 바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이며 반동적이고 지배주의적인 정책실현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미국은 저들과 결탁한 인민의 원쑤들, 한줌도 안되는 반동세력들과 불량배들의 불법비법의 폭력행사들을 《합법적권리의 행사》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요구를 《존중》해주는것이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으로 된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리고 친미적인 괴뢰정부들이 생존권과 정치적권리보장 등을 위해 일떠선 자국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것과 같은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를 하고있다.

미국의 《년례인권보고서》발표놀음은 국제무대에서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곳곳에서 색갈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2002년 3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포웰은 세계각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년례인권보고서》가 《인권유린의 불모지에 정화의 빛을 뿌려주며 인권개선의 기준을 제시해주고있다.》고 현란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위하여 공헌하고있는듯이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친미세력들을 《인권투쟁》에 나서도록 부추겼다. 미국이 친미세력들을 내세워 벌려놓고있는 《인권투쟁》이란 본질에 있어서 제도전복, 정권붕괴이다.

그로 하여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부추김과 지원밑에 여러 나라들에서 《무혈혁명》, 《색갈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내부분쟁을 모략적으로 조장하고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제 비위에 맞지 않는 고위인물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비렬한 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정치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이러한 《년례인권보고서》발표놀음에 침을 뱉고있다.

로씨야는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비난하는 미국의 이번 《년례인권보고서》는 진저리나는 미국식인권혼시의 또 다른 하나의 실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미국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나라들은 문제성이 있다는 잘못된 론리에 기초하고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는 현실과 동떨어진것으로서 흔히 무근거한 절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매 나라들의 민주화수준을 제멋대로 분류한것이다라고 규탄하였다. 이란도 제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반인륜적범죄까지 비호두둔하고있는 미국의 《년례인권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에짚트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가들사이에 지켜야 할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놓고볼 때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재판관처럼 행세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자기 나라의 한심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나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야유하였다.

미지배층이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것은 자국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감추고 자국내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심을 눅잦히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사회적모순과 계급적대립이 첨예하게 조성되여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사회에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날로 심화되고있는것은 인종간, 계층간, 지역간 모순과 갈등, 인간증오사상과 황금만능주의뿐이다. 흑인들이 백인경찰들의 사격과녁이 되여 죽어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곳도 미국이고 99%의 국민이 1%의 재벌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짓눌려야 하는 곳도 바로 이 악의 제국이다.

1970년대 후반기 카터정권시기에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을 한 브레진스키와 그밖의 인물들이 집권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은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로써 사상적고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을 준 때로부터 미국은 자국을 《인권옹호국》, 《인권재판관》으로 위장하고 남을 걸고들고 시비질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인권문제를 가리우기 위한 《인권외교》놀음에 본격적으로 매달려오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통하지 않고있다.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을 헐뜯는 미국의 《년례인권보고서》발표놀음에 대응하여 미국의 인권실태를 적라라하게 폭로하는 문건들을 만들어 해마다 공개하고있다. 이 문건들에서는 미국에서 총기범람과 각종 폭력범죄활동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는것, 형벌이 람용되고 비인간적인 형벌수단들이 리용되고있는것, 극도의 인종차별, 소수종족차별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는것, 금전정치와 이로 하여 국민들이 충분한 정치적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것,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한심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것, 정탐모략기구들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반주민들을 감시하고 도청한것 등 미국의 심각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렬거하고있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규탄배격하듯이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때문에 얼마전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장의 피고석에 끌려나와 절대다수의 성원국들로부터 되게 두들겨맞았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무대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이렇소저렇소 하며 넉두리를 해대도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다.

미국은 절대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부질없는 《인권보고서》발표놀음으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포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고있는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한 길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망상이다.

미지배층은 내부가 곪을대로 곪고 썩을대로 썩어 파국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자국의 운명부터 걱정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안철권

미국의 변함없는 세계제패야망

미국이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연습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아리조나와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미씨시피 등 7개주들에서 군사연습이 개시되였다.

미국본토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벌어지는 이번 군사연습은 중동나라들의 지형과 비슷한 지역들에서 새로운 전술 및 행동을 련마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8주일동안 진행되는 이 연습에는 륙군과 해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한편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해군무력증강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18일 미해군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최신예전투함선 《리틀 록크》호의 진수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날 미해군성 장관은 《리틀 록크》호의 진수가 10년안에 수백척의 함선으로 무어진 함대를 창설하려는 해군에 있어서 상징적인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만한 함대만 있으면 세계의 모든 수역에서 강력한 존재를 얼마든지 유지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1147(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